

국회의원·지자체 공동주최 토론회 ‘다양’

지속 가능 발전·미래 먹거리 관련 주제 많아 서삼석·신정훈·서동용, 흙의 가치·중요성 환기 이개호 ‘초소형전기차’ 등 규제완화 방안 모색

광주·전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주최하는 각종 토론회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서삼석·서동용·신정훈·이태규·홍정민 국회의원과 구례군이 공동 주최한

‘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회 토론회가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후 위기 대응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기후위기 대응에서 크게 조명받지 못한 흙의 가치와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구례군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례발, 지속 가능한 환경(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y Gurye: ESG)’ 운동을 전국으로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2022년 ‘탄소 중립 추진 유공’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필주 국립경상대학교 교수가 ‘탄소중립을 위한 흙의 역할과 새로운 기회 만들기’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양학 전문가인 김교수는 기후위기 등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흙 살리기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고품질의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탄소 중립 흙 살리기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이어 송지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통한 토양 등 농업 분야 탄소 저장능력 확대 방안’, 홍성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의 ‘구례군 탄소중립을 위한 토양 탄소 저장 및 합리적 토양 관리 방안’, 이순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의 ‘탄소 배출권 확보 및 농촌과 산업과의 탄소 저장 수익 공유방안’ 등에 관한 주제발

표가 이뤄졌다. 또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후변화대응팀장은 ‘토양 탄소 저장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산정과의 해의 사례’, 이택배 전북대학교 객원교수는 ‘지속적인 토양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한 생태계 보존 방안’, 김상규 태재대학교 교수는 ‘지방시대와 지방자치단체: 구례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21일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 금지 등 초소형 전기차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초소형 전기차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초소형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는 영광군을 지역구로

이 의원을 비롯해 문진석·민홍철·김민철·허영·천준호·이성만 의원과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영광군의 전기차 산업은 시행 초기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재는 영광 대마산단에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입주하고 경쟁력도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은 금지돼 있다”며 “토론회에서 초소형 전기차 산업의 수요 창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깊은 논의를 통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도쿄전력 항의 방문한 정의당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강행 예정인 가운데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시민당 의원들과 도쿄전력 본사에서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개호·소병철 발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국회 통과

‘반의사 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 처벌 대상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른바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법안으로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에 상관없이 범죄자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

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 때문에 2차 가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또한 개정안에는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수집해 배포하고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의 신종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면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 이개호 의원은 “기존 반의사 불벌규

정으로 스토킹범죄의 경우 합의 요구 과정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새로운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범죄를 선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김희재, ‘향일암’ 군부대 이전 청원서 전달

전현희 권익위원장 “관심있게 잘 살필 것” 화답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여수)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추진위원회와 함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한 범국민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권익위 방문에는 김 의원 외에 여수시의회 이석주·이선호·김종길·정현주·홍현숙 의원 등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청원서 전달에 앞서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향

일암이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거북머리에 위치한 군부대로 아름다움이 훼손되고 있다”며 “수년간 군부대를 이전해달라는 여수시민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와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임해왔다”고 청원서 전달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거북머리 군부대로 인해 여수 임포마을 주민들은 교통 체증, 안전 문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고 매년 200만명이 방문하는 향일암 방문객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임포마을 주민들이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위해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여수시와 국방부의 비협조로 군부대 이전까지 이뤄지지 못했다”며 “향일암 군부대 이전 추진위원회를 대표해 200여명의 범국민 연원을 담아 청원서를 제출하는 만큼, 권익위가 수년간 지속된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지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여수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문화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속상하기까지 하다. 향일암이 아름답고 멋진 문화재인 만큼 관심있게 잘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김진수 기자

조오섭 ‘항공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운항 중인 항공기내 승객 난동·소란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22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내 금지행위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5년간 항공기내 금지행위 발생 건수는 2019년 536건에 달했고, 2020년 133건, 2021년 8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264건, 2023년(4월 기준) 15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 이용객이 급감했던 2020-2022년을 제외하면 사실상 올해도 500여건

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루 평균 13건 이상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항공기내 금지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내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승객 과승무원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항공기는 특성 상 자칫 대형 인명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해할 수 있는 요인을 없애고 승객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윤영덕 ‘민원 소통 직통문자’ 개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22일 ‘남구민과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민원 소통 직통전화(문자 전용)’를 개설,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원 소통 직통전화 서비스’는 문자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남구민의 불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남구민의 고충이나 민원, 정책 제안 등 언제든지 휴대폰 문자로 보내면 검토 후 7일 이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민원 소통 문자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문자로 접수가 가능하며, 번호 010-4195-5518로 민원문자를 보내면 되고 전화 통화는 불가능하다. /김진수 기자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DREAM DREAM DREAM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